

광주시, 제1회 추경예산 8727억 증액 편성

2024년 본예산 대비 12.6% 증가
업무추진비 절감 등 효율 극대화

광주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 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 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재검토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 △경기악화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이예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재난 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 의료 예산 등의 적기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부

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학교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돌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원) 등 생애주기별 시민 행복 복지예산을 먼저 반영했다.

또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 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림 사업에 편성했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업단지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

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츠히를 보수(31억원) 등 유사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

(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입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며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업계 수출 확대 모색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 진행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등 논의

전남도는 18일 도청에서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 현장 애로 간담회를 열고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등 케이(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도의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정책 방향을 수출기업과 공유, 소통함으로써 수출을 더 넓혀가기 위해 진행됐다.

수출 현장에서는 △나주 해농 △함평 맛나푸드 △완도 청해진수산 △서영암농협 △나주배원예농협 △담양 봉산농협 딸기영농조합법인 △고흥 한성푸드 △전남 식품수출협회 등 농수산물식품 수출 분야의 다양한 현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전남도는 2024년 수출 물류비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수산물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과 김 경쟁력 제고사업, 온·오프라인 해외상설 판매장 운영 등 수출 확대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또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지역 수출 특화 품목을 육성, 수출 유망품목의 시제품이나 샘플 보관·발송 시 발생하는

국내외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산업 업계 관계자는 "전남이 전국 김 생산의 7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은 30%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마른 김을 수출이 직접 구매해 전남에 있는 가공공장에 우선 보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전남식품수출협회는 "미국 등 바이어가 굴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전남산 굴이 미국에 수출되도록 지정 해역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신선 농산물 업계 관계자는 "수출 유도를 위해 수출용 봉지, 사각 상자, 포장재 등 수출용 기자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올해부터 물류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K-농산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출 물류비 대체 사업이 시급하다"며 "해외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신규시장 개척 등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면서 수출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정부,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점검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7개 건설현장을 점검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구간 17km로, 유촌동 차량기지과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에 이르는 본선 1~6공구 등 총 7개 건설현장이다.

점검내용은 △흙막이 가시설(버팀보, 띠장, 앵글 등) 설치상태 및 계측관리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배수로, 침사지, 사면보호시설 등 설치 상태 △복공 단차 및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싱크홀, 포트홀) 발생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선 등 지하매설물 안전조치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은 긴급 안전조치 후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김재식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철저한 안전점검과 품질관리를 통해 재해 없는 공사 현장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ADI뮤지엄에서 열린 'DBEW(Design Beyond East and West) 전시'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 디자인계 거장 '스테파노 지오반노니'와 대담

내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
밀라노서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세계 산업디자인계 거장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내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와 함께 '디자인도시 광주'를 구현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구전시회인 '밀라노가구박람회'에 마련된 '스테파노 지오반노니 특별전시관'에서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과 가진 대담에서 지오반노니는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 등 대표단은 이날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발전 방안과 디자인도시 광주 구현 등에 대해 세계적 디자이너 '스테파노 지오반노니'와 의미있는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 광주시의회 신수정·이귀순·서임석 의원, 최경란 국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 대표단이 내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참여 요청에 지오반노니는 흔쾌히 함께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그동안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해온 것과 앞으로 해

야 할 것에 대한 기획, '디자인도시 광주' 구현에도 자신의 노하우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담에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강 시장의 질문에 지오반노니는 "디자인은 대중을 향한 대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민주적이고 대중적으로 다양하게 인기를 얻는 제품만이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이야말로 굉장히 지적(창의적)이면서 경제적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오반노니는 "디자인은 이익 창출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이탈리아 경제의 상당 부분이 디자인에 치중돼 있고, 디자인회사들은 중소기업이 많아 다양하고 특이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꼽히는 스테파노 지오반노니는 1954년 이탈리아에서 출생해 피렌체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알레시오와 같은 디자인회사들과 협업을 통해 디자이너 최초로 300개 이상의 메탈과 플라스틱 제품을 출시하며 산업디자이너로서 명성을 쌓았다.

또 지난해 열린 제10회 광주디자인비

엔날레에서 이탈리아 디자인 작품들을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오반노니는 "자라는 배경과 문화에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고 밝혔다. 이 영감을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그가 성장한 비결이라고 했다.

그의 작품에는 '토끼 의자'와 같이 토끼, 기린, 고릴라 등 동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동물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어떤 동물이나 사물의 특징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했다. 예를 들어 '토끼 의자'는 토끼라는 실루엣과 의자를 접목하면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에서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강 광주시장은 "내년 9월 열리는 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도 지오반노니의 새로운 디자인, 멋지고 즐거운 디자인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어 '가구의 집합(Salone del Mobile Milano)'이라는 주제로 피에라미라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디자인·가구 전시회인 '밀라노가구박람회'를 둘러봤다. 노병하 기자